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4년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전월대비는 0.6% 감소

○ 2014년 8월 생산은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등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석유정제(8.4%), 1차금속(4.6%) 등에서 증가하였고, 자동차(-14.8%), 기타운송장비(-12.7%), 영상음향통신(-13.6%) 등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함(전월대비 3.8%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1.5%), 예술·스포츠·여가(-1.9%)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업(6.9%), 보건·사회복지업(5.8%), 부동산·임대업(4.9%)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함(전월대비 0.3% 증가)

○ 2014년 8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9.8%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4.5%), 승용차 등 내구재(1.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함(전월대비 2.7% 증가)
-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특수산업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8% 감소함(전월대비 10.6%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신규주택, 사무실·점포 등에서 수주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9.3% 증가함.

- 2014년 8월 동행종합지수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0.7%, 1.2%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소매판매액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7%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8p 상승함.

◆ 2014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1% 상승(생활물가지수 0.6% 상승)

- 2014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38(2010년=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3% 하락하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1%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교통(-2.3%), 오락 및 문화(-0.3%) 등에서 하락하였고, 의류 및 신발(4.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8%), 주택·수도·전기·연료(2.6%) 등에서는 상승하였음.
 - 2014년 9월 생활물가지수는 108.07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하였음(전월대비로는 변동 없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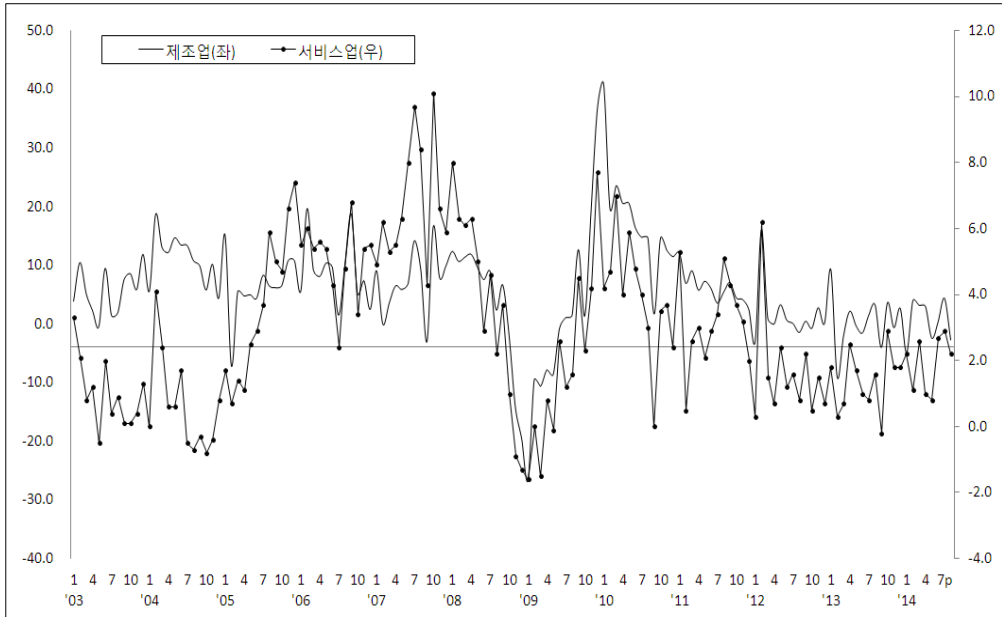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8월	1/4	1/2p	8월p
생산	광공업 생산	9.1	6.2	5.4	3.4	6.0	3.9	1.3	-0.3	0.8	1.3	-0.8	0.0	0.2	1.7	0.3	3.2	0.7	0.3	-2.8
	제조업 생산	9.3	6.3	5.2	3.6	6.0	4.1	1.2	-0.3	0.6	1.4	-0.8	0.0	0.1	1.8	0.3	3.2	0.6	0.2	-2.7
	출하	10.2	5.5	4.5	2.9	5.8	3.4	1.7	0.5	0.3	1.5	-0.9	0.3	0.1	1.8	0.4	4.5	0.2	-0.2	-3.0
	내수	7.3	4.0	3.7	1.5	4.1	1.0	-0.7	-1.3	-1.7	-0.7	-3.4	-2.4	-1.3	1.6	-1.1	3.3	1.4	1.4	-4.1
	수출	14.1	7.5	5.9	4.5	7.8	6.6	4.8	2.6	2.7	4.2	2.1	3.5	1.7	2.2	2.3	5.9	-1.2	-2.1	-1.7
	서비스업 생산	2.8	2.7	4.2	3.0	3.2	2.6	1.5	1.6	0.8	1.6	0.9	1.7	0.8	2.1	1.4	0.7	1.9	1.4	2.1
소비	소비재 판매	5.2	6.3	4.0	2.6	4.5	2.8	1.4	2.7	2.5	2.4	0.3	1.2	0.7	1.2	0.8	2.2	2.5	0.7	2.1
투자	설비투자	5.2	7.4	3.2	-1.4	3.5	8.2	-4.2	-7.9	-6.4	-2.8	-13.1	-4.0	2.7	10.4	-1.3	11.1	5.9	6.2	-9.8
물가		3.8	4.0	4.3	4.0	4.0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0	1.1	1.6	1.1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4년 9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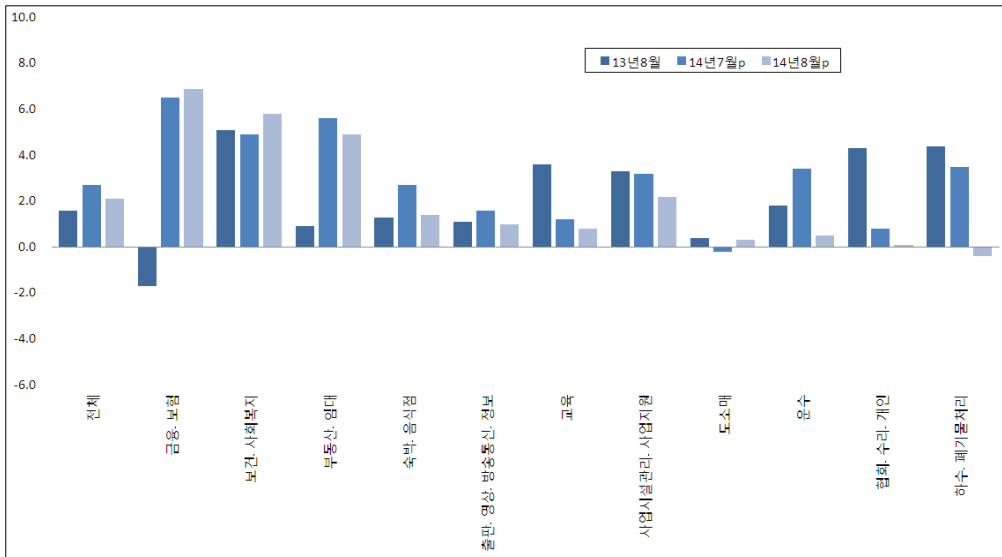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4. 9), 『2014년 8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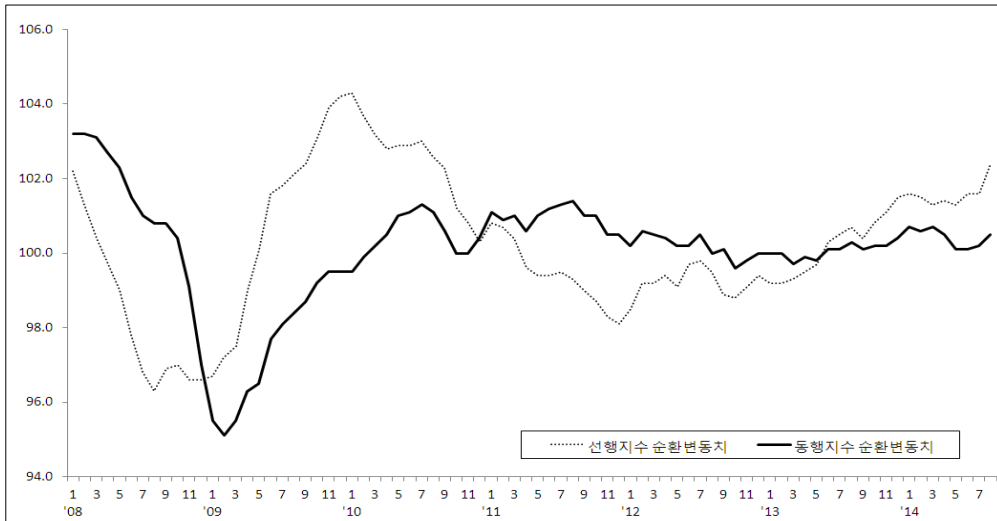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자료 : 통계청, KOSIS.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전년동분기대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취업자 증가 유지

- 2014년 3/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6,81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23천 명(2.4%)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463천 명으로 305천 명(2.0%) 증가하였고, 여성은 11,303천 명으로 319천 명(2.9%) 증가하였음.
- 2014년 3/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0%로 전년동분기대비 0.9%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5%)은 전년동분기대비 0.8%p 상승하였고, 여성(52.0%)은 전년동분기대비 1.0%p 상승하였음(그림 4 윗그림 참조).
- 2014년 3/4분기 중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분기대비 0.6%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9%로 전년동분기대비 0.6%p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50.3%로 전년동분기대비 0.6%p 상승하였음(그림 4 아랫그림 참조).
- 2014년 3/4분기 중 취업자는 25,92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17천 명(1.8%)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97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68천 명(1.8%)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948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49천 명(2.3%)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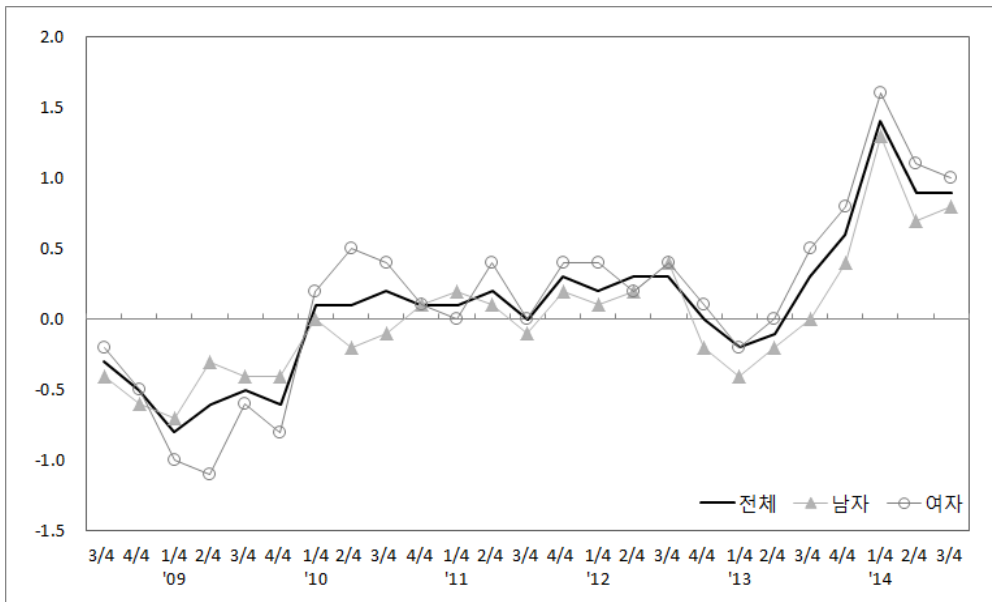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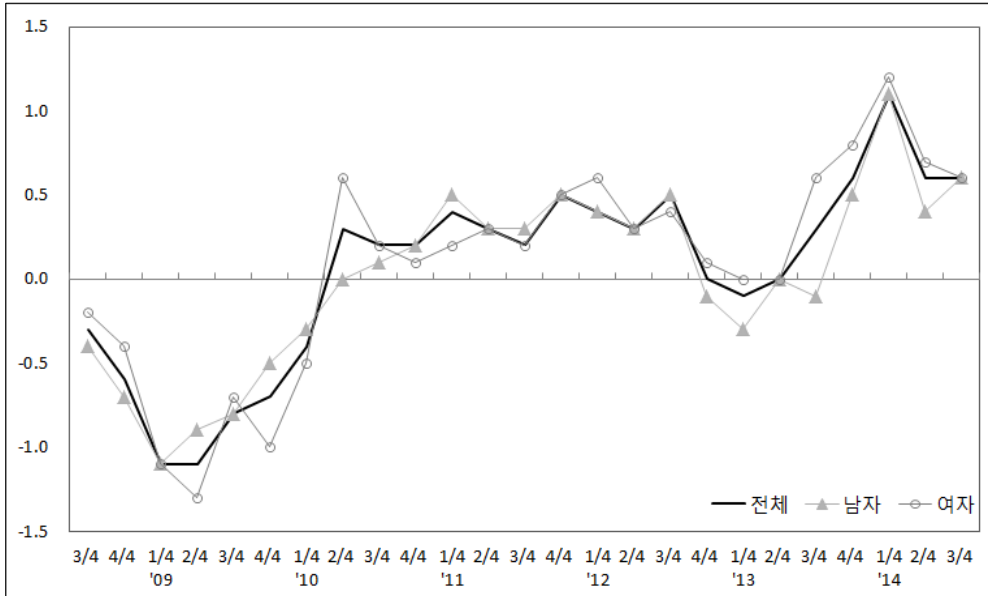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경제활동인구	25,091 (0.9)	26,138 (1.1)	26,187 (1.7)	26,187 (1.7)	26,078 (2.2)	25,945 (3.4)	26,767 (2.4)	26,810 (2.4)	26,775 (2.7)	26,766 (2.2)
참가율	59.9	62.2	62.1	62.1	61.7	61.3	63.1	63.0	62.9	62.8
취업자	24,184 (1.1)	25,326 (1.3)	25,410 (1.7)	25,466 (1.9)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885 (2.3)	25,917 (1.8)
고용률	57.7	60.2	60.3	60.4	60.0	58.8	60.8	60.9	60.8	60.8
실업자	907	812	777	720	733	1,031	977	884	890	849
실업률	3.6	3.1	3.0	2.7	2.8	4.0	3.7	3.3	3.3	3.2
비경제활동인구	16,831 (2.0)	15,911 (1.5)	15,982 (0.5)	16,008 (0.4)	16,167 (-0.6)	16,397 (-2.6)	15,685 (-1.4)	15,760 (-1.4)	15,797 (-1.8)	15,845 (-1.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4. 10), 『2014년 9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참가율(위)과 고용률(아래)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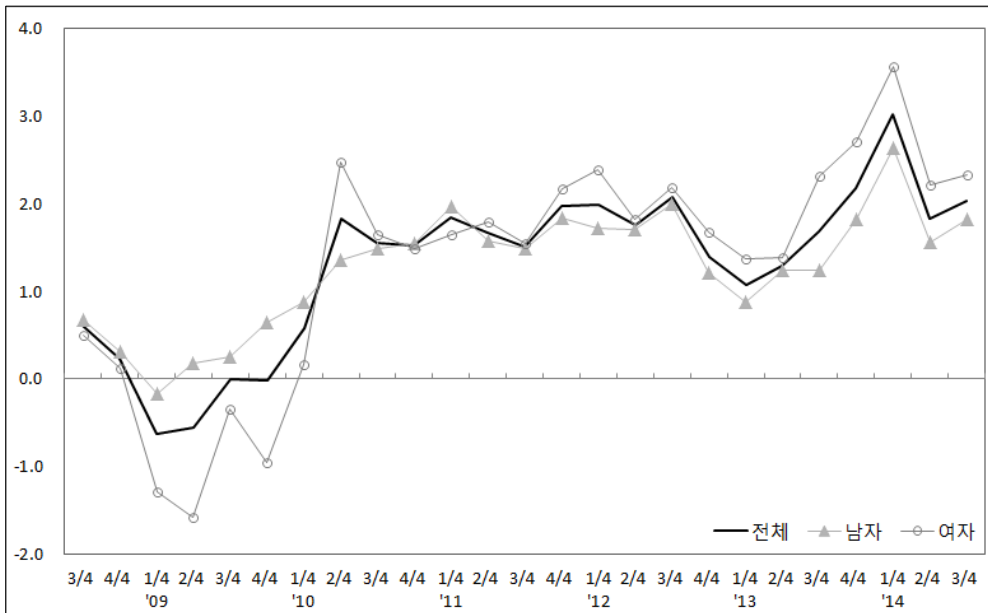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4년 3/4분기 중 실업자는 884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7천 명(13.8%) 증가, 실업률은 3.3%로 전년동분기대비 0.3%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52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7천 명(7.5%)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54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0천 명(24.7%)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4%로 전년동분기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성은 3.1%로 전년동분기대비 0.5%p 상승하였음.
- 2014년 3/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22천 명(-1.4%) 감소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1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0천 명(-1.8)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42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22천 명(-1.2%) 감소하였음.
 - 2014년 3/4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5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91천 명 증가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2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5천 명(-4.4%)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10천 명으로 108천 명(-2.5%) 감소하였음.

◆ **제조업, 건설업 전년동분기대비 취업자 증가 지속**

- 2014년 3/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94천 명, 4.7%), 건설업(57천 명, 3.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78천 명, 4.9%), 그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87천 명, 2.1%) 등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21천 명, -7.0%)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76천 명, -2.5%)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산업	24,184 (1.1)	25,326 (1.3)	25,410 (1.7)	25,466 (1.9)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885 (2.3)	25,917 (1.8)
농림어업	1,167 (-0.7)	1,686 (-1.6)	1,724 (1.1)	1,737 (1.5)	1,504 (-1.0)	1,179 (1.0)	1,631 (-3.2)	1,603 (-7.0)	1,596 (-7.3)	1,609 (-7.4)
제조업	4,156 (3.0)	4,182 (3.0)	4,152 (0.6)	4,174 (0.5)	4,245 (1.2)	4,279 (3.0)	4,319 (3.3)	4,346 (4.7)	4,335 (5.3)	4,347 (4.1)
건설업	1,656 (-3.7)	1,801 (-0.4)	1,775 (0.2)	1,788 (0.4)	1,783 (-0.5)	1,683 (1.6)	1,813 (0.6)	1,833 (3.2)	1,810 (3.7)	1,839 (2.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34 (-0.7)	5,585 (-0.2)	5,652 (0.7)	5,657 (1.3)	5,751 (2.6)	5,837 (5.5)	5,798 (3.8)	5,930 (4.9)	5,931 (5.0)	5,931 (4.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656 (3.1)	8,974 (1.7)	8,990 (2.5)	9,020 (2.9)	8,994 (3.6)	8,865 (2.4)	9,147 (1.9)	9,176 (2.1)	9,183 (2.7)	9,166 (1.6)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999 (-0.4)	3,082 (3.1)	3,102 (3.8)	3,075 (2.8)	3,054 (1.9)	3,055 (1.9)	3,067 (-0.5)	3,026 (-2.5)	3,016 (-2.9)	3,013 (-2.0)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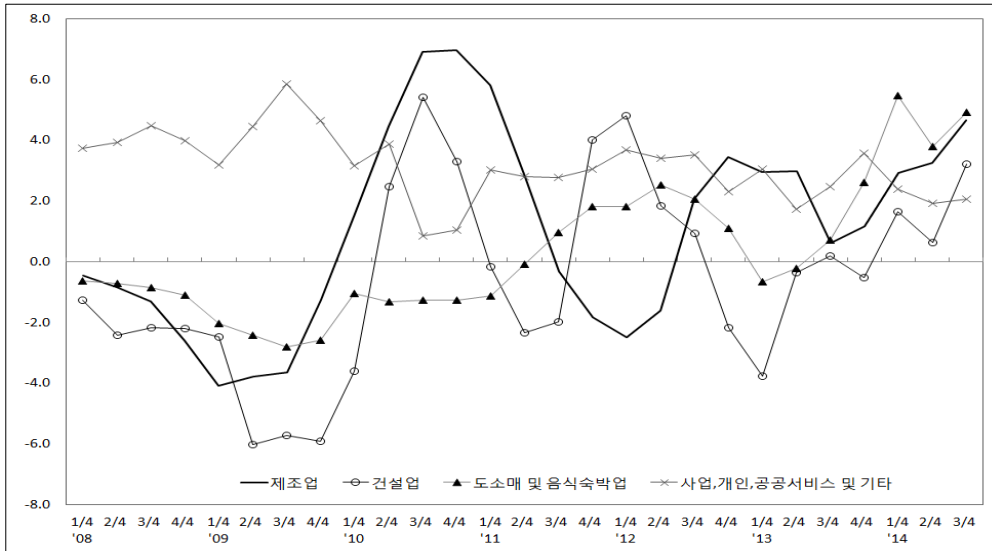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4. 10), 『2014년 9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폭 감소

- 2014년 3/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는 7,04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천 명(0.0%) 감소, 임금근로자는 18,88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19천 명(2.8%)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181천 명으로 333천 명(2.8%)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도 5,153천 명으로 226천 명(4.6%)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546천 명으로 39천 명(-2.5%) 감소하였음.
 -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그림 7 및 그림 참조).
- 2014년 3/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22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6천 명(-29.5%)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 또한 20,184천 명으로 374천 명(1.9%)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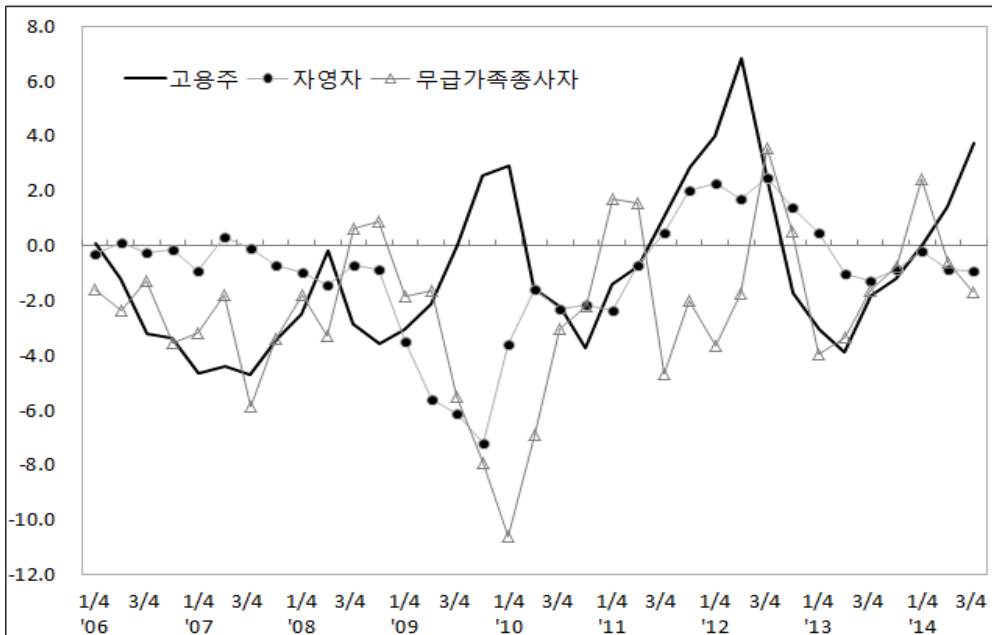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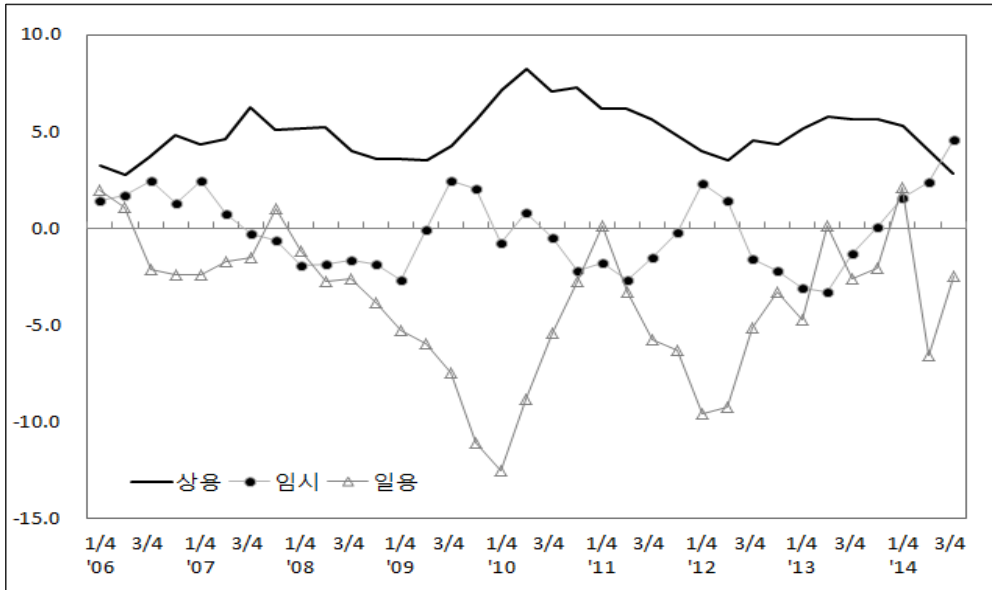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체	24,184 (1.1)	25,326 (1.3)	25,410 (1.7)	25,466 (1.9)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927 (2.0)	25,885 (2.3)	25,917 (1.8)
비임금근로자	6,578 (-1.1)	7,006 (-2.1)	7,049 (-1.5)	7,037 (-1.5)	6,854 (-0.9)	6,597 (0.3)	6,984 (-0.3)	7,047 (0.0)	7,108 (0.8)	6,999 (-0.5)
자영업주	5,520 (-0.5)	5,726 (-1.8)	5,740 (-1.4)	5,724 (-1.4)	5,618 (-0.9)	5,512 (-0.1)	5,712 (-0.2)	5,760 (0.3)	5,804 (1.0)	5,742 (0.3)
무급가족종사자	1,059 (-3.9)	1,280 (-3.4)	1,309 (-1.6)	1,508 (-0.3)	1,236 (-0.8)	1,085 (2.5)	1,272 (-0.6)	1,287 (-1.7)	1,305 (0.0)	1,257 (-4.2)
임금근로자	17,606 (1.9)	18,320 (2.6)	18,361 (2.9)	18,429 (3.2)	18,492 (3.4)	18,316 (4.0)	18,806 (2.6)	18,880 (2.8)	18,776 (2.9)	18,918 (2.7)
상용근로자	11,379 (5.1)	11,697 (5.8)	11,848 (5.6)	11,888 (5.3)	11,925 (5.6)	11,985 (5.3)	12,175 (4.1)	12,181 (2.8)	12,165 (2.7)	12,213 (2.7)
임시근로자	4,762 (-3.1)	4,945 (-3.3)	4,928 (-1.3)	4,937 (-0.5)	4,935 (0.0)	4,835 (1.5)	5,063 (2.4)	5,153 (4.6)	5,104 (5.0)	5,138 (4.1)
일용근로자	1,465 (-4.8)	1,678 (0.2)	1,585 (-2.6)	1,605 (-0.4)	1,631 (-2.1)	1,496 (2.1)	1,567 (-6.6)	1,546 (-2.5)	1,507 (-1.8)	1,568 (-2.3)
36시간 미만	5,563 (67.9)	4,821 (46.8)	5,083 (7.6)	3,445 (3.5)	3,395 (5.5)	3,593 (-35.4)	3,397 (-29.5)	5,229 (2.9)	8,580 (4.9)	3,528 (2.4)
36시간 이상	18,099 (-9.9)	20,217 (-5.6)	19,810 (0.2)	21,679 (1.6)	21,636 (1.7)	20,829 (15.1)	22,090 (9.3)	20,184 (1.9)	16,435 (0.8)	22,049 (1.7)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4.10), 『2014년 9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위) 및 비임금근로자(아래)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전 연령대 · 교육수준별 실업률 전년동분기대비 상승

- 2014년 3/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8.6%, 0.7%p), 30대(3.0%, 0.1%p), 40대(2.1%, 0.2%p), 50대(2.1%, 0.3%p), 60세 이상(1.5%, 0.3%p) 전 연령대에서 상승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에서도 전년동분기대비 중졸 이하(2.0%, 0.2%p), 고졸(3.9%, 0.5%p), 대졸 이상(3.3%, 0.2%p) 전 교육수준에서 상승하였음.

〈표 5〉 연령별 ·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체	907 (3.6)	812 (3.1)	777 (3.0)	720 (2.7)	733 (2.8)	1,031 (4.0)	977 (3.7)	844 (3.3)	890 (3.3)	849 (3.2)
15~29세	343 (8.4)	325 (7.9)	328 (7.9)	320 (7.7)	328 (7.9)	419 (9.8)	399 (9.4)	371 (8.6)	364 (8.4)	358 (8.5)
30~39세	195 (3.3)	180 (3.0)	170 (2.9)	146 (2.5)	155 (2.6)	187 (3.2)	202 (3.4)	181 (3.0)	185 (3.1)	168 (2.8)
40~49세	143 (2.1)	146 (2.1)	131 (1.9)	116 (1.7)	114 (1.7)	155 (2.3)	167 (2.4)	145 (2.1)	153 (2.2)	137 (2.0)
50~59세	127 (2.3)	106 (1.8)	106 (1.8)	96 (1.7)	88 (1.5)	130 (2.2)	140 (2.3)	129 (2.1)	131 (2.2)	130 (2.1)
60세 이상	99 (3.4)	56 (1.6)	42 (1.2)	42 (1.2)	48 (1.4)	140 (4.4)	69 (1.9)	58 (1.5)	58 (1.6)	57 (1.5)
중졸 이하	148 (3.3)	101 (2.0)	86 (1.8)	81 (1.6)	84 (1.8)	173 (3.9)	108 (2.3)	95 (2.0)	98 (2.1)	91 (1.9)
고졸	367 (3.7)	341 (3.3)	345 (3.4)	303 (3.0)	335 (3.3)	443 (4.3)	427 (4.1)	414 (3.9)	426 (4.0)	381 (3.6)
대졸 이상	392 (3.7)	370 (3.4)	346 (3.1)	336 (3.0)	313 (2.8)	416 (3.7)	442 (3.8)	375 (3.3)	366 (3.2)	377 (3.3)
취업무경험 실업자	61	48	54	52	49	83	61	56	55	44
취업유경험 실업자	845	764	723	668	684	948	916	827	835	805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4. 10), 『2014년 9월 고용동향』.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4년 7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 2014년 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8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3,131천 원) 1.8% 상승함.
 - 2014년 7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한 3,365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해 2,672천 원을 기록하였고, 초과급여는 전년동월대비 10.3% 상승하여 200천 원을 기록함.
 - 반면,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10.1% 하락하여 494천 원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1	2012	2013	2014				
				1~7월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44 (1.0)	2,995 (5.3)	3,111 (3.9)	3,076 (4.2)	3,131 (4.5)	3,333 (2.3)	3,188 (1.8)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19 (-0.9)	3,178 (5.3)	3,299 (3.8)	3,255 (4.2)	3,316 (4.6)	3,365 (1.5)	
	정액급여	2,341 (4.8)	2,470 (5.5)	2,578 (4.4)	2,564 (4.7)	2,586 (4.5)	2,672 (3.3)	
	초과급여	179 (-8.4)	181 (1.0)	184 (1.7)	182 (0.1)	181 (-0.1)	198 (7.3)	200 (10.3)
	특별급여	498 (-19.3)	527 (5.8)	537 (1.8)	509 (3.1)	549 (7.1)	488 (-2.5)	494 (-10.1)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15 (15.1)	1,293 (6.4)	1,377 (6.5)	1,374 (7.1)	1,386 (6.3)	1,392 (1.8)	1,393 (0.5)	
소비자물가지수	104 (4.0)	106 (2.2)	108 (1.2)	107.5 (1.4)	107.6 (1.6)	109.0 (1.4)	109.3 (1.6)	
실질임금증가율	-2.9	3.1	2.6	2.8	2.8	0.9	0.3	

주 : 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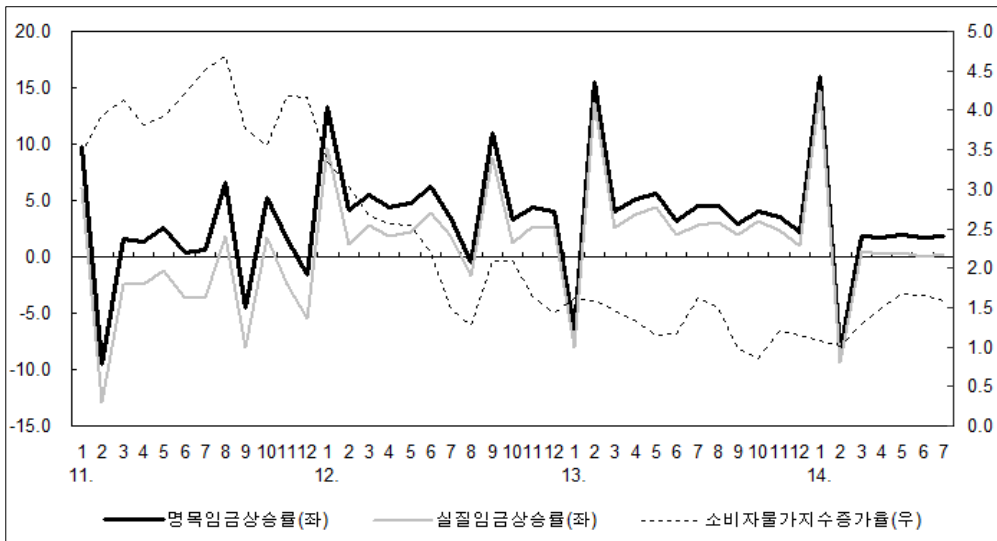
2) 1~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한 1,393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1~7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33천 원으로 전년동평균(3,076천 원)대비 2.3%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3년 1~7월 평균 대비 2.4% 상승한 3,333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3년 1~7월 평균 대비 3.1%, 초과급여는 7.3% 상승한 반면, 특별급여는 2.5% 하락함.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3년 1~7월 평균 대비 1.8% 상승한 1,392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7월 실질임금은 0.3% 상승함.
 - 2014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0.3% 상승에 그쳐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함(그림 8 참조).
 - 2014년 1~7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4년 1~7월 평균 실질임금증가율은 0.9% 상승하였으며, 이는 명목임금상승률의 둔화폭이 컸던 것에 기인함.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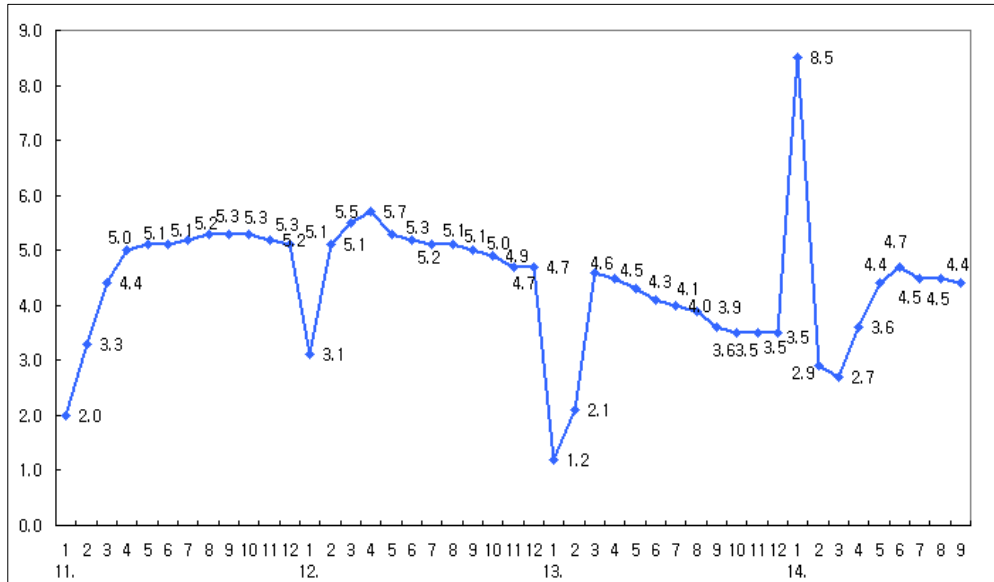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9월 협약임금인상률 4.4%

- 2014년 9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인상률은 4.4%로 2013년 9월 인상률(3.6%)에 비해 0.8%p 상승함.

[그림 10] 협약임금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4년 7월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 상승

- 2014년 7월 기준 광업, 전기·가스 등, 출판·영상 등, 부동산 및 임대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4년 7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4%), 건설업(4.0%), 교육서비스업(3.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9%)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총액이 증가함.
 -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7%), 부동산 및 임대업(-2.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6%), 광업(-1.1%)은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감소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7월		1~7월	
			평균	7월	평균	7월
전 산업	2,995 (5.3)	3,111 (3.9)	3,076 (4.2)	3,131 (4.5)	3,148 (2.3)	3,188 (1.8)
광업	3,470 (4.9)	3,557 (2.5)	3,617 (2.3)	3,633 (-6.7)	3,514 (-2.8)	3,595 (-1.1)
제조업	3,221 (6.1)	3,371 (4.7)	3,318 (5.2)	3,425 (5.3)	3,459 (4.3)	3,481 (1.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388 (-1.7)	5,542 (2.9)	5,288 (3.4)	4,947 (1.4)	5,404 (2.2)	4,813 (-2.7)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654 (6.7)	2,743 (3.3)	2,676 (4.4)	2,716 (4.9)	2,756 (3.0)	2,760 (1.6)
건설업	2,273 (4.2)	2,414 (6.2)	2,416 (7.2)	2,378 (6.5)	2,477 (2.5)	2,473 (4.0)
도소매업	3,122 (6.1)	3,168 (1.5)	3,113 (2.3)	3,133 (-0.1)	3,151 (1.2)	3,176 (1.4)
운수업	2,589 (8.2)	2,732 (5.5)	2,681 (5.9)	2,814 (7.4)	2,716 (1.3)	2,846 (1.2)
음식·숙박업	1,738 (5.2)	1,772 (1.9)	1,726 (-0.2)	1,696 (-3.5)	1,734 (0.5)	1,720 (1.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851 (4.3)	3,936 (2.2)	3,970 (3.4)	3,923 (3.4)	3,875 (-2.4)	3,862 (-1.6)
금융 및 보험업	4,988 (4.6)	5,058 (1.4)	5,120 (1.7)	5,091 (6.0)	5,177 (1.1)	5,119 (0.6)
부동산 및 임대업	2,194 (8.8)	2,269 (3.4)	2,258 (2.6)	2,377 (4.2)	2,299 (1.8)	2,330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2 (6.3)	4,243 (3.2)	4,086 (3.2)	4,053 (4.6)	4,303 (5.3)	4,231 (4.4)
사업서비스업	1,789 (5.3)	1,883 (5.2)	1,858 (6.0)	1,874 (6.1)	1,897 (2.1)	1,906 (1.7)
교육서비스업	3,123 (4.6)	3,261 (4.4)	3,348 (5.8)	3,779 (6.3)	3,409 (1.8)	3,911 (3.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08 (4.7)	2,662 (2.0)	2,644 (2.4)	2,654 (3.3)	2,639 (-0.2)	2,730 (2.9)
여가관련 서비스업	2,211 (3.8)	2,326 (5.2)	2,307 (6.4)	2,458 (3.7)	2,386 (3.4)	2,461 (0.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8 (2.0)	2,226 (-0.1)	2,210 (0.6)	2,208 (4.0)	2,206 (-0.2)	2,245 (1.6)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7월 평균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4년 1~7월 평균 기준 임금 상승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3%)이고, 다음으로 제조업(4.3%), 여가관련 서비스업(3.4%),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3.0%), 건설업(2.5%) 순으로 임금 상승이 두드러짐.
 - 반면, 광업(-2.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2.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0.2%)에서는 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7월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상용근로자 임금 증가

- 2014년 7월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증가함.
 - 2014년 7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3,03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하였고, 이는 정액급여(2.9%), 초과급여(8.5%)의 상승에 기인함. 한편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6.7% 하락함.
 -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7.4%)와 초과급여(20.0%)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한 4,751천 원을 기록함. 그러나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6.6% 하락한 1,124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7월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사업체에서는 하락함.
 - 2014년 7월 기준 비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6.1% 상승한 1,542천 원인 반면, 5~299인 규모의 임금총액은 0.6% 하락한 1,383천 원을 기록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7월		1~7월	
				평균	7월	평균	7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178(5.3)	3,299(3.8)	3,255(4.2)	3,316(4.6)	3,333(2.4)	3,365(1.5)
	정액급여	2,470(5.5)	2,578(4.4)	2,564(4.7)	2,586(4.5)	2,647(3.2)	2,672(3.3)
	초과급여	181(1.0)	184(1.7)	182(0.1)	181(-0.1)	198(8.9)	200(10.3)
	특별급여	527(5.8)	537(1.8)	509(3.1)	549(7.1)	488(-4.2)	494(-10.1)
	비상용임금총액	1,293(6.4)	1,377(6.5)	1,374(7.1)	1,386(6.3)	1,392(1.3)	1,393(0.5)
5~299인	상용임금총액	2,834(5.9)	2,938(3.7)	2,902(3.9)	2,970(4.0)	2,962(2.0)	3,030(2.0)
	정액급여	2,333(5.9)	2,433(4.3)	2,420(4.5)	2,443(4.4)	2,490(2.9)	2,514(2.9)
	초과급여	156(3.5)	160(3.0)	159(2.2)	161(2.1)	170(6.8)	175(8.5)
	특별급여	345(7.7)	345(-0.3)	324(0.3)	366(2.5)	301(-6.9)	341(-6.7)
	비상용임금총액	1,301(7.0)	1,392(7.0)	1,388(7.6)	1,390(7.7)	1,395(0.5)	1,383(-0.6)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424(3.5)	4,583(3.6)	4,515(4.5)	4,550(5.5)	4,730(4.8)	4,751(4.4)
	정액급여	2,965(4.3)	3,093(4.3)	3,079(5.0)	3,095(4.3)	3,234(5.1)	3,325(7.4)
	초과급여	275(-3.9)	270(-1.6)	264(-4.5)	252(-5.3)	305(15.4)	302(20.0)
	특별급여	1,185(3.4)	1,220(3.0)	1,172(5.2)	1,204(11.4)	1,190(1.6)	1,124(-6.6)
	비상용임금총액	1,209(0.1)	1,219(0.8)	1,218(1.1)	1,328(-11.2)	1,356(11.4)	1,542(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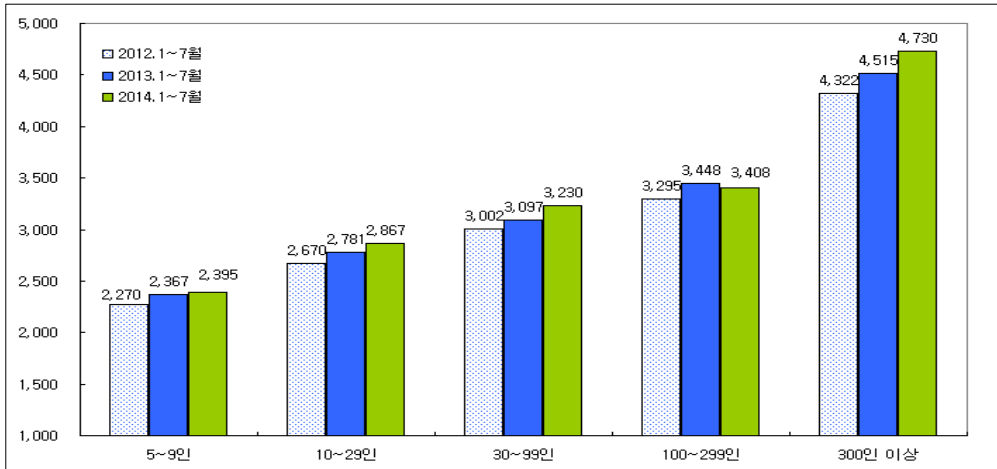
주: 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7월 평균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2,962천 원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2.0% 상승하였고, 이는 정액급여(2.9%), 초과급여(6.8%)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지만 특별급여는 전년동기간대비 6.9% 하락함.
 -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730천 원으로 전년동기간 평균대비 4.8% 상승하였고, 이는 정액급여(5.1%), 초과급여(15.1%), 특별급여(1.6%)가 모두 상승한 영향임.
 -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기간대비 각각 0.5%, 11.4% 상승함.

◆ 2014년 7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2014년 7월 근로시간은 185.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함.
 - 2014년 7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85.3시간)은 전년동월(185.0시간)에 비해 0.3시간(0.25%) 증가함(표 9 참조).
 - ※ 월력상 근로일수(23일)가 2013년 7월과 동일함.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91.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6.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함.
- 2014년 1~7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1.1% 감소함.

- 2014년 1~7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2.4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평균(174.4시간)에 비해 2.0시간(-1.1%) 감소함.
- 전년동기간대비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적음.
- 2014년 1~7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평균대비 0.9% 감소한 178.1시간을 기록함.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5.1% 감소한 118.0시간을 기록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7월 평균		1~7월 평균	
			7월	7월	7월	7월
전체 근로시간	174.3(-1.1)	172.6(-1.0)	174.4 (-0.5)	185.0(2.5)	172.4(-1.1)	185.3(0.2)
상용총근로시간	179.9(-1.2)	178.1(-1.0)	179.7 (-0.6)	191.0(2.9)	178.1(-0.9)	191.1(0.1)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7.2(-0.8)	165.6(-1.0)	167.4 (-0.2)	178.7(3.2)	165.1(-1.4)	178.1(-0.3)
상용초과근로시간	12.8(-5.9)	12.5(-2.3)	12.3 (-5.4)	12.3(-1.6)	13.0(5.7)	13.0(5.7)
비상용근로시간	122.3(-0.2)	122.5(0.2)	124.4 (2.6)	128.8(0.6)	118.0(-5.1)	126.7(-1.6)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7월 근로시간은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증가

- 2014년 7월 근로시간은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함.
 - 2014년 7월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은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3.3%), 운수업(-2.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 건설업(-1.7%), 교육서비스업(-0.8%), 사업서비스업(-0.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0.5%), 도소매업(-0.2%)에서 감소함.
 - 반면, 여가관련 서비스업(2.3%), 제조업(1.7%), 광업(0.8%), 금융 및 보험업(0.7%)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전체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함.
- 2014년 1~7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감소함.
 - 2014년 1~7월 평균 근로시간은 교육서비스업(1.1%), 여가관련 서비스업(0.7%), 제조업(0.5%)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함.
 - 2014년 1~7월 평균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4.0%), 운수업(-3.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2.9%) 등임.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2	2013	2014			
			1~7월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전 산업	174.3(-1.1)	172.6(-1.0)	174.4(-0.5)	185.0(2.5)	172.4(-1.1)	185.3(0.2)
광업	185.3(-0.9)	180.6(-2.5)	182.3(-2.2)	190.5(0.1)	179.9(-1.3)	192.1(0.8)
제조업	186.4(-2.2)	185.0(-0.8)	186.5(-0.7)	196.6(3.2)	187.4(0.5)	200.0(1.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5.5(-0.9)	173.4(-1.2)	175.6(-0.3)	183.2(3.3)	171.1(-2.6)	184.2(0.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4.8(-0.8)	182.0(-1.5)	183.9(-1.0)	197.2(3.6)	178.6(-2.9)	190.6(-3.3)
건설업	152.5(-0.9)	152.7(0.1)	155.6(2.7)	161.8(2.6)	149.3(-4.0)	159.1(-1.7)
도소매업	174.5(-0.3)	173.4(-0.6)	175.1(0.2)	186.9(3.0)	173.1(-1.1)	186.5(-0.2)
운수업	181.7(0.1)	177.8(-2.1)	179.0(-1.9)	187.5(-0.2)	173.4(-3.1)	183.6(-2.1)
음식·숙박업	186.6(0.2)	177.3(-5.0)	176.0(-6.7)	178.2(-5.5)	173.7(-1.3)	179.7(0.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9(-0.4)	163.0(-0.5)	164.7(0.2)	177.5(2.7)	163.5(-0.7)	177.7(0.1)
금융 및 보험업	163.4(-0.1)	162.7(-0.4)	164.7(0.5)	179.1(4.3)	164.6(-0.1)	180.4(0.7)
부동산 및 임대업	193.4(-0.4)	191.5(-1.0)	193.7(-0.8)	202.3(2.0)	190.4(-1.7)	202.6(0.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5.3(-0.5)	163.9(-0.8)	165.7(-0.1)	178.2(3.2)	164.0(-1.0)	178.3(0.1)
사업서비스업	173.1(0.6)	172.3(-0.5)	173.6(0.1)	186.2(3.4)	172.4(-0.7)	185.0(-0.6)
교육서비스업	151.1(-1.2)	150.6(-0.3)	152.0(-0.3)	168.2(1.3)	153.7(1.1)	166.8(-0.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4.8(0.7)	172.0(-1.6)	174.1(-0.5)	185.9(2.8)	170.0(-2.4)	182.8(-1.7)
여가관련 서비스업	158.1(0.6)	158.0(-0.1)	158.6(0.6)	167.1(1.6)	159.7(0.7)	170.9(2.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8.9(-2.7)	167.5(-0.8)	169.4(-0.4)	181.0(4.6)	164.2(-3.1)	180.1(-0.5)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7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7월 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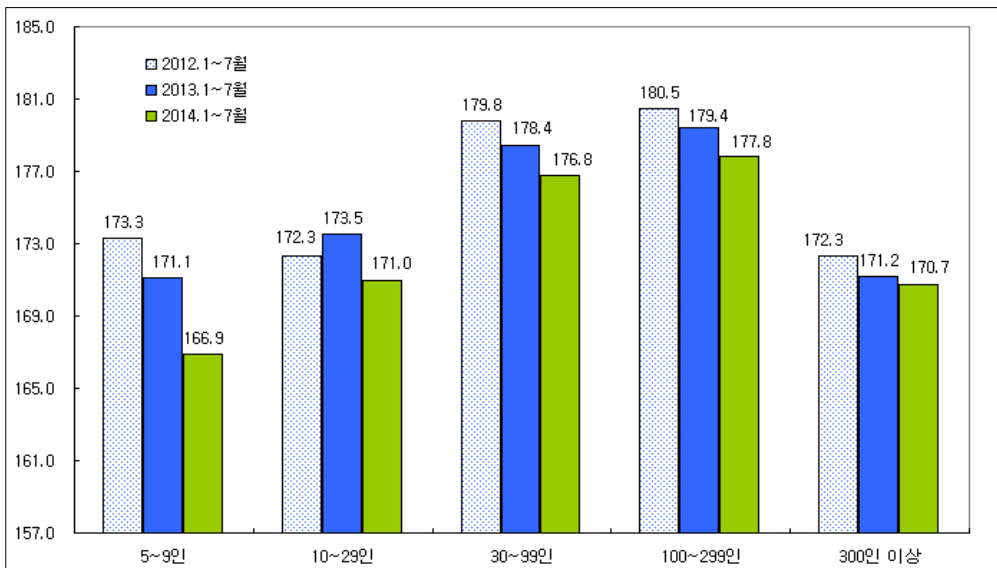
- 2014년 7월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로 상반된 양상을 보임.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185.5시간을 기록한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한 184.2시간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세부 규모별 근로시간을 보면,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90.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92.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92.6시간으로

로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한 반면, 100~ 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9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6.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함.

- 한편 2014년 1~7월 평균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감소함.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한 172.8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한 170.7시간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4년 1~7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79.2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8%,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1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7%,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7%,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8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7% 감소함으로써 상용근로자 중소기업의 총 근로시간은 179.2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2% 감소함.
 - 한편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총 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1% 증가함.

[그림 11] 사업체 규모별 기간 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9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673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9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519건)보다 154건 높은 수치임.
- 지난 9월 조정성립률 52.6%
 - 지난 9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66.3%에 비해 13.7% 낮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증가와 조정성립률의 저하를 통해 노사관계의 악화, 조정이 슈 복잡성의 증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표 11〉 2013년, 2014년 9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4. 9	673	635	273	116	157	246	33	213	41	75	38	52.6
2013. 9	519	490	275	179	96	140	46	94	19	56	29	66.3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9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285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9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370건)보다 85건 낮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0.3%(80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69.7%(184건)를 차지함.

〈표 12〉 2013년, 2014년 9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4. 9	285	264	76	4	63	32	89	0	20
2013. 9	370	358	159	4	42	38	115	0	13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첫 공동파업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노조는 지난달 11일 첫 공동파업인 ‘파업투쟁 승리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직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철폐, 성실교섭을 촉구함.
 - LG유플러스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8~11일 1차 경고파업 이후 사측이 기본급을 신설하고 건당 수수료를 성과에 따라 주는 임금체계 개편안과 4대보험 가입 의무화도 제안했으나, 지부관계자는 “일부 진전된 안이 나왔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이어서 노동자들은 조합원 일감 뺏기와 도급계약 강요, 노조탈퇴 종용과 같은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원청이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SK브로드밴드 인천계양서비스센터는 업체변경 과정에서 도급계약서 체결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사면을 주지 않아 업무를 할당받지 못하고 있고, 전남동부센터 역시 개통기사들의 근로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했다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았음.
- 두 지부는 경고파업을 마치고 13일 현장에 복귀하지만, 교섭에 집중하면서 현장상황이 심각한 지회를 중심으로 원청의 행동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임.
 - 9월부터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노숙농성중인 LG유플러스 지부에 이어 SK브로드밴드 지부도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중구 SKT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함.

◆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 투쟁

- 연장근로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근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규탄행동에 돌입함.
 - 지난달 2일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일주일 연장근로시간 현행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 △휴일근로 가산임금규정 삭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 및 3개월 → 1개월 및 12개월)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등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함.
 - 개정안에서 노동계의 비판이 집중되는 대목은 근기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조항에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임.
 -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

- 당하는 경우이든, ‘휴일근로이지만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이든 상관없이 휴일근로 수당 자체가 삭감돼 결과적으로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줄어든다”고 우려함.
- 민주노총은 지난달 12일 “국회에 제출된 근기법 개악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만들어낸 사실상 정부 법안”이라며 “전국의 새누리당 광역시당 사무소와 법안을 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전국 지방 노동관서 앞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은 국회 일정상 11월 중순 이후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앞서 집중투쟁을 배치할 계획임.
 - 또한 노동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간접고용 문제와 연계해 투쟁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과 대정부 항의투쟁을 전개할 계획임.

◆ 공무원노조, 공무원 총궐기대회 계획

-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17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을 마련하고 새누리당과 정책협의를 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정치권에 반발하며 11월 1일에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임.
 - 공노총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당·정 협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정부나 여당의 공식적인 발표 이후에야 우리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며 “다만 일부 고액 수령자 문제 등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혁 논의는 공무원노조를 참여시킨 가운데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 이어서 공노총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만 따로 떼내 개혁 논의를 하지 말고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체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공노총과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같이하고, 11월 1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을 함께 저지할 예정임.
 -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화섬노조 KCC 울산지회, 파업 임박

-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노사가 반목하고 있어 화섬노조 울산지역본부 KCC 울산지회가 14년만에 파업을 벌임.
 - KCC 울산공장 노사는 올해 5월부터 1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 9월 19일과 30일 두 차례 진행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함.
 - 이에 지회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함.
 - 노조는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적용 △기본급 12만 9천 78원(기본급 대비 7%) 인상 △성과급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통상임금 적용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기본급 7만 1천 520원 인상(기본급 대비 3.93%)과 근속수당 월 1만 원 인상안을 제시함.
 - 사측은 현행 58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9세에는 임금 10%, 60세에는 임금 2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도안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지회는 임금피크제는 임금교섭 사안이 아닐 뿐더러 임금삭감안이라며 거부함.
 - 지회 관계자는 “KCC 본사가 전국 10개 공장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번 파업을 통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KCC 본사에 지회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힘.

◆ 국민노총, 한국노총과 통합 추진

- 지난달 15일 국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열고 한국노총과의 조직 통합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한 결과, 참석 대의원 42명 중 37명(90.2%)의 찬성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조직 통합을 결의함.
 - 국민노총 최대 가입사업장인 서울메트로노조가 최근 상급단체를 국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전됨.
 - 출범 당시 3만여 명이던 국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현재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SH공사노동조합,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 등 100여개 노조의 17,914명이며, 조합원 80만 명의 한국노총과 국민노총 통합은 오는 12월 내 마무리지을 예정임.
 - 가결 후 국민노총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당 대 당 통합으로 더 신뢰를 주는 노동운동을 펼쳐 갈 것”이라고 밝혔고, 자리에 참석한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민노총의 가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국민노총과의 통합으로 제대로 된 노동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함.

◆ **건강보험 통합노조 출범**

- 지난달 1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조합원 1만여 명의 통합 국민건강보험노조를 출범시킴.
 - 통합규약 제정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9,919명 중 8,45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조합원의 82.9%가 찬성하였으며, 12월 말까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다가 내년 1월 단일집행부를 출범시킬 예정임.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으로 활동하던 두 노조가 통합을 위해 각각 상급단체를 탈퇴하였고, 통합노조는 내년 4월쯤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계획임.
 - 두 노조 모두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연맹에서 조직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하기에 이들의 통합은 상급단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통합노조 관계자는 “노조 내적으로는 통합을 완성했지만 단일노조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노조가 공공보험과 의료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함.

◆ **다산콜센터, ‘유급 감정휴가’ 보장**

- 다산콜센터가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유급 감정휴가 도입과 관련하여 6~7일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음.
 -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다산콜센터 지부와 위탁업체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은 9월 30일 집중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며, 합의안에는 연 1회 ‘감정순화를 위한 유급 안식휴가’를 포함함.
 - 노사는 이 밖에 △주휴수당 차감 없는 병가 사용 △육아휴직 사용 후 연차휴가 사용에서의 불이익 금지 △임금인상 4%(기본급 대비 약 4만 원) △노조활동 500시간 추가 보장에도 합의함.
 - 노조 관계자는 “감정노동 보호와 모성보호를 위한 기본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서울시의 중재를 이끌어낸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히, 노사의 대립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합의에 이룬 것으로 전해짐.
 - 이어서 노조는 “이번 교섭을 계기로 서울시와의 소통을 통해 직접고용 전환까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 **중앙노동위, 철도노조 조합원의 직위해제는 부당**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한 한국철도공사의 조합원 8,600여 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 직위해제 사건을 다룬 전북·서울·부산 등 8개 지노위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행해진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노조간부들에 대한 판정은 지노위별로 상이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조간부에 대한 직위해제도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함.
 - 중노위의 판정이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해고를 당한 99명(이 중 73명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노조간부들의 부당해고 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중노위의 최종판정이 남은 상황에서 한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코레일이 직위해제를 이용해 탄압했던 것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였음이 중노위 판정에서 다시 확인됐다”며 “노조간부들의 해고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이뤄진 만큼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간부 공장출입 제한 논란**

- 지난달 13일부터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의 울산공장 출입이 통제되어 지회와 현대차지부 정규직 노조 관계자들이 반발하자 지회사무실 출입만 허용되고, 자동차 생산라인에는 접근하지 못해 논란이 됨.
 - 현대차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2주간 지회에 미가입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조직확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측의 출입통제 조치에 따라 조직화 사업에 어려움을 겪음.
 - 지회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입을 안내하려면 공장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회사 경비원과 관리자들이 이를 막고, 예정에 없던 잔업을 시행하거나 협력업체 사장들이 갑자기 회식을 잡는 방식으로 지회와 비조합원이 만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지회는 원청인 현대차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예정임.
 - 반면, 사측 관계자는 “회사 규율에 따라 출입증이 없는 해고자들의 공장출입을 제한했을 뿐”이라며 “공장에 들어오려면 정식 채용절차에 따라 직원이 되면 된다”고 말함.

- 한편 8월 현대차 노사와 2개 하청지회가 체결한 사내하청 정규직화 특별합의에 따라 지회간부들의 공장출입을 제한한 13일부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추가 채용에 나섬. **KLI**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